

[ 경제 ]

■ 대기업 은행 소유 허용 논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를 풀고 보험·증권지주회사에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하는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법안이 13일 발표됨에 따라 찬반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산업 성장” vs “자금흐름 왜곡”

◇기업·연기금·사모펀드 은행 소유 허용=정부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기금과 사모펀드(PEF)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대폭 열고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직접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높기로 했다.

연기금·사모펀드 등 요건 갖추면 인수 가능 금융-제조업 장벽 무너져 리스크 확산 우려

면 산업자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산업자본이 PEF를 통해 은행에 보다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대기업 집단 지주사 전환 유도=정부가 은행 지주회사를 제외한 보험 또는 증권지주회사에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주회사의 대형화를 물론 금융업과 제조업 계열사가 뒤얽혀있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단순화, 투명화하는 뜻도 담겨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험지주회사는 자회사 형태로 제조업체를 지배할 수 있지만 보험 자회사가 제조업체를 직접 손자회사로 거느릴 수 없다. 보

험사가 고객자산을 제조업체에 쓸 경우 이해 상충이 생길 수 있고 보험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종이 다른 회사사 간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고 업무위탁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지주회사 전환의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금융-제조업 장벽 제거 논란=금융위의 규제 완화 계획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일반 지주회사에 금융 자회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금산분리 정책의 전면 수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주회사에 적용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

가 풀리면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금융업과 제조업 사이의 방화벽이 약해져 금융에서 발생한 위험이 제조업으로, 또는 제조업의 부실이 금융업으로 전이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적 연기금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정부가 간접적으로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산업자본이 PEF를 통해 은행 경영에 간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소유규제를 없애면 금융산업의 중추인 은행이 대기업에 좌우되며 자금흐름이 왜곡되거나 부실화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금산분리 완화정책으로 금융기관이 재벌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고 경제주체간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역시 부정적인 입장으로 관련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CD금리 또 상승

연 6%대...7년 9개월만에 최고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연 6%대로 올라섰다.

13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91일 물 CD 금리는 전 영업일보다 0.02%포인트 상승한 연 6.00%를 기록했다. 이는 2001년 1월 30일(연 6.0%) 이후 7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CD 금리는 지난달 25일 연 5.79%에서 연 5.80%로 오른 뒤 줄곧 상승세를 이어가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9일에는 추축했으나 10일부터 오름세를 재개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CD 금리가 상승세를 타는 것은 은행채 금리와 격차를 메우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품값 高 서민생활 苦

환율상승 여파 농축산물 등 10~20% '경중'

환율 급등과 추가 폭락으로 국내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수입가격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공산품 일부 품목의 가격이 최근 인상됐고 일부는 곧 오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심해지고 실물경기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13일 유통업계와 식품업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참치캔·빵·기저귀 등의 가격이 지난달부터 한달여간 10~20% 가량 올랐다. 또 바나나와 수입소고기·와인 등 수입 농축산물, 수입제품도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10~20% 가량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다.

동원F&B는 참치캔 가격을 지난달 25일부터 14~18% 인상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살코기캔(100g×3입)의 경우 기존 3천780원에서 4천490원으로, 고추참치캔(150g×3입)은 기존 5천100원에서 5천990원으로, 스파게티참치캔(150g×3입)은 기존 5천210원에서 6천원으로 올랐다.

CJ제일제당 역시 다시다 가격을 지난 25일부터 7~9% 인상, 대형마트에서 CJ다시다 500g 용량은 5천650원에, 750g 용량은 8천원에 판매되고 있다.

SPC도 사니 전빵과 삼행 호빵을 지난달 5일부터 편의점에서 팔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100원씩 올랐다.

가계대출 잔액 500조 돌파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5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예금취급 기관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4조2천776억원(0.9%)이 늘어난 503조 999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규모는 전달의 3조8천650억원(0.8%)보다 확대됐다.

이 가운데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조1천775억원(0.6%)이 늘어난 381조 5천378억원으로, 7월의 2조3천902억(0.6%)보다 증가액이 소폭 줄었다.

한은은 월중 학자금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늘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전달 2조4천130억원에서 8월 1조원으로 줄었다.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농협·수협 등 신용협동기구 대출을 중심으로 전달의 1조4천748억원(1.3%)에서 8월 2조1천억원(1.8%)으로 확대됐다.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13일 나주시 노안면 이슬촌 팍스테이마에서 광주·전남지역 28개 팍스테이마를 대표와 자매결연 기업체 임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전통음식 만들기 강습회를 가졌다.

“지방건설사·중소 지원책 곧 발표”

강만수 재정 밝혀

취약 기업 긴급 조치 실물경제 위기 차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사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책 마련 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강 장관은 13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본격 전이될 경우 가장 걱정되는 부문은 지방 건설회사와 중소기업, 벤처기업 직원들”이라며 “조만간

이들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최근 지방 건설회사는 물론, 한해지용 파생상품인 키코(KIKO) 거래 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사정이 상당히 어렵다”며 “금융시장이 진정되면 이 문제 해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조치는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들 취

약 기업에 대한 긴급 조치를 적기에 한다면 실물경제 전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시장 불안은 결국 세계공조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며 “다만 실물부문은 이제 시작이며,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실물부문 위기를 차단할 수 있는냐가 갈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건설사 숨통 트일듯

정부, 2조6,393억 만기어음 연장 분양 공공택지 되사주기 등 지원

정부가 건설사의 자산담보부기어음(ABCP) 공환을 연장하고 업체가 분양받은 공공택지를 되사주는 등 건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13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늘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2조 6천393억원 규모의 ABCP 상환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건설사 지원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ABCP는 기업이 단기 운전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어음으로, 정부는 기존 ABCP가 만기일이 되면 신규 ABCP로 바뀌워 자금난을 덜어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분양받은 공공택지도 계약을 포기하면 중도금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업체가 한국토지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택지를 되사달라고 요구할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중도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대한주택보증은 다음달부터 총 2조원 규모의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본격 매입에 나선다.

이는 준공전 미분양아파트를 주택보증이 분양가의 70~75%선에서 환매조건부 매입하는 방식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국토부 내년 예산 올해보다 7%↑

SOC투자 늘어 경기침체 극복 기대

국토해양부는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7% 이상 증가해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13일 “지난 5년간 국토해양부 예산은 평균 2.5% 증가하는 데 그쳐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7.4%에 크게 못

미쳤으나 내년에는 7.1% 늘어나게 됐다”면서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SOC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예산은 총지출 기준(추경 미포함)으로 올해 19조552억원에서 내년

에는 20조4천464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책정됐다.

국토부 내년 예산안의 편성 현황을 부문별로 보면 도로의 경우 지역 광역권 연계 발전을 위해 일반국도사업비가 4천812억원 증가하는 등 4.7%(7조5천 893억원→7조9천429억원) 늘어난다.

또 철도 부문(도시철도 포함)의 경우에도 4조9천47억원에서 5조3천511억원으로 4.3% 늘어나 지역간 연계 철도망이 조기에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 신규 착수하는 사업은 새만금 신항개발 등 총 70개 사업이다.

환율 고에 해외여행 줄었다

지출액 8년만에 감소세로

■1~8월중 일반여행 수입·지출액 (100만 달러/1~8월 누계)

연도	일반여행수입	일반여행지출
2000년	4,508.4	4,136.4
2001년	4,413.2	4,411.6
2002년	4,014.0	6,256.7
2003년	3,196.1	5,483.2
2004년	4,012.4	6,345.4
2005년	3,770.0	8,097.0
2006년	3,861.6	9,418.8
2007년	3,692.4	10,677.4
2008년	4,962.5	10,023.8

을 들어 일반 해외여행 지출액이 8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일반 해외여행 대외 지출액은 100억2천38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106억7천740만 달러에 비해 6.1% 줄었다. 1~8월 기준으로 일반 여행 대외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2003년(-12.4%) 이후 처음이다.

일반여행 대외 지출액은 ▲2004년 63억4천540만 달러(증가율 15.7%) ▲2005년 80억9천700만 달러(27.6%) ▲2006년 94억1천880만 달러(16.3%)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00억 달러대에 진입했다.

8월 한달간 일반여행 지출액은 11억4천98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의 15억2천380만 달러에 비해 24.5%가 줄었다. 이 감소율은 8월 기준으로 환란 당시인 1998년(-62.2%) 이후 최대 폭이다.

반면 일반여행 수입액(외국인 지출액)은 1~8월에 49억6천25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36억9천240만 달러보다 34.4%가 증가했다. 이 증가율은 1998년의 45.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반여행 수입액은 ▲2004년 40억1천240만 달러(증가율 25.5%) ▲2005년 37억7천만 달러(-6.0%) ▲2006년 38억6천160만 달러(2.4%) ▲2007년 36억9천240만 달러(-4.4%) 등이었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센트럴관광호텔	[호텔서비스]웨이츄레스/룸서비스 정규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4	062-383-7575
㈜삼진엔지니어링	MCT, 밀링, 선반 담당 경력 직원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10/15	062-951-5555
광주공과대학	일반사무관리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0/15	062-369-0790
신원전자정밀주	생산라인 공정관리 경력직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10/15	062-719-7700
한진실업	진공성형 업무, 플라스틱 절단업무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0/15	062-953-4702
㈜영경하이테크	사무보조, 구매팀 전표인력등 사무업무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0/17	062-956-8454
변지유 뷰티	패션디자이너 신입/경력 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7	062-222-7205
롯데가스보일러(매직상사)	보일러설치 및 서비스기사 경력직	초대졸/경력3년	1600~1800	10/18	062-525-77
㈜삼성캐러	월드지나너 채용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9	062-366-8700
㈜신원세링	대기업 납품처량 운전 및 납품 진행	고졸/경력1년	1400~1600	10/22	018-619-2793
CJ홈쇼핑	[남.예고객상담(재테크팀) 월령400만/보장120만]	고졸/경력무관	4000~5000	10/23	02-2201-5205
이차항공기 스튜디오	사진촬영, 보조, 고객상담, 포토샵(앨범편집), 베이비의상코디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4	010-4142-8275
창화산업	생산부 정규직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0/24	062-973-2043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쌀 신선도 유지 황토 항아리가 최고

쌀을 오래도록 신선하게 먹고 싶다면 황토항아리를 하나 장만하는 것이 좋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가정에서 이용되는 여러가지 쌀 보관법의 신선도 유지 정도를 측정한 결과 가장 이상적인 보관법은 황토항아리 보관이라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플라스틱이나 철재 쌀통, 일반 항아리, 포장재 그대로 보관하는 것보다 황토항아리에 보관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신선도에 영향을 미치는 수분의 변화가 가장 적어 쌀 보관에 알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토항아리는 다른 보관 용기에 비해 공기나 수분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면서도 열 전도도가 낮아 쌀을 장기간 신선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고 농진청은 밝혔다.

SK telecom 같은학교, 학생끼리 통화료 50%할인 학교끼리 T타입 할인제도